

# 봉사활동 참여하는 시민들 발길 줄이어

## 전주시·국제라이온스협회356-C전북지구 39개 클럽 천년전주 행복드림 결연사업 협약식 개최

‘천사의 도시’ 전주에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전주는 지난 2000년부터 해마다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익명기부’를 이어오며, 따뜻한 온정이 넘치는 ‘천사의 도시’로 불려왔다.

전주시와 국제라이온스협회356-C(전북)지구 전주지역 39개 클럽은 17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이상복 지구총재를 비롯한 결연클럽 회장 및 동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2017년도 천년전주 행복드림 결연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시와 라이온스클럽이 앞서 지난 2013년 1월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공평하고 누수 없는 봉사를 추진하고자 체결한 협약의 연속성을 확인하고, 결연사업의 지속적인 성과창출과 활동의 파급력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복 총재는 이날 협약식에서 앞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고, 전주시에 소외계층 아동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5000만원 상당의 아동용 내의도 함께 전달했다.

국제라이온스356-C지구 전주지역 39개 클럽은 앞서 지난 2013년 전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결연클럽 및 결연동과 공동으로 소외계층과 다문화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돌봐왔다.

이와 관련,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총 17만2977명으로 지난 2014년(14만8208명)보다 2만4769명 증가하는 등 해



전주시와 국제라이온스협회356-C(전북)지구 전주지역 39개 클럽은 17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이상복 지구총재를 비롯한 결연클럽 회장 및 동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2017년도 천년전주 행복드림 결연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자원봉사 참여인원(5만8390명)과 자원봉사 활동시간(150만334시간)도 1년 새 각각 1만여명과 31만여시간이 늘어 사회 전반에 돌봄과 나눔, 봉사의 가치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아침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아침도시락을 배달하는 밥 굶는 아이없는 엄마의 반상과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지혜의 반찬’, 생리대를 구입할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등 각종 복지정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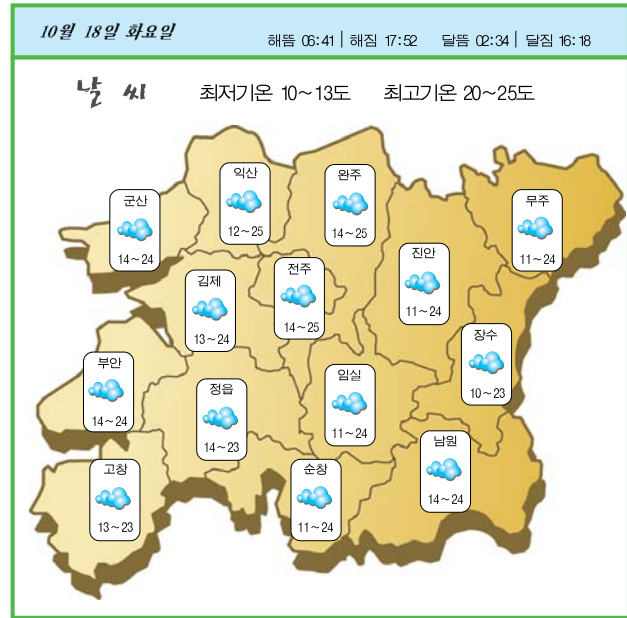
이 시민들과 지역 기관·단체의 후원 의 손길이 더해지며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

국제라이온스35670지구(총재 우기민) 전주지역 29개 클럽도 지난 8월 9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협약대상자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2017년도 천년전주 결연봉사 협약식’을 개최하고, 공평하고 누수 없는 봉사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국제라이온스35670지구는 올해 1억2000만원 상당을 소외계층과 불우이웃을 위해 나누겠다는 천년전주 결연봉사

예정액을 전주시에 전달하는 등 2012년 7월 전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와 돌봄 활동에 참여해오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는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알려지며 따뜻한 천사의 도시’로 불려왔다”며 “천사와 같은 마음의 시민들이 배운 온정과 후원의 손길을 잘 전달해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의 도시 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 원광대 치과대학 청소년자원봉사 박람회 참가 봉사활동

### 청소년 대상 구강건강에 대한 설문조사·상담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치과대학 제4기 재학생들이 최근 군산 은파호 수공원에서 열린 ‘2016 찾아가는 청소년자원봉사 박람회’에 참가해 군산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설문조사 및 상담을 실시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건욱, 김대환, 김한영 학생을 비롯한 6명은 봉사에 앞서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및 봉사의 자세 등 사전교육을 받았으며, 봉사활동과 더불어 치과 진료와 관련된 기구 전시 및 치과 진료체험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통합 체형과 치과 인상제를 이용한 손가락 석고 모형 제작을 통해 치과외사의 진료영역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 참

가 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방대학특성화사업(CX)의 일환으로 치과대학생 구강보건교육능력 향상 및 치과외사로 지역사회에 기여 가능한 봉사활동 시행을 목적으로 부스를 설치해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전체 프로그램 관리자로 피상희 교수와 김이름 전공의가 참여했다.

한편 원광대 치과대학은 현재까지 제4기 재학생의 20%가 봉사 관련 실무교육 및 활동을 수행했으며, 앞으로 전체 치과대학 학생들이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에 대한 실무 체험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장영원기자

# 전주시보건소, 미취학아동 건강체험 학습터 운영

## 흡연예방·구강·영양체험관·운동·음주예방 체험관 등 4개관 구성

전주시가 미취학아동들의 건강돌봄기에 나섰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보건소 강당에서 아동들의 건강생활실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미취학아동 건강체험 학습터를 운영한다.

미취학아동 건강체험 학습터는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아동기 미취학아동들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과 구강, 영양,

운동 및 음주예방 등의 건강생활에 대한 체험과 시청각 학습을 제공해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실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건강체험 학습터는 △흡연예방 체험관 △구강 체험관 △영양체험관 △운동 및 음주예방 체험관 등 총 4개관으로 구성·운영된다. 먼저, 흡연예방 체험관에서는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 등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구강 체험관에서는 올바른 칫솔질 교육 및 실습,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 교육 등이 운영된다. 또, 영양 체험관에서는 우리 몸에 알맞은 영양소의 역할과 올바른 식사방법과 올바른 식사예절, 편식예방, 음식 골고루 섭취하기, 4가지 영양소 알아보기 등의 교육이 운동 및 음주예방 체험관에서는 가상 음주 고글 체험 등이 진행된다.

/김영재기자

## 군산대 인문도시 센터, 인문주간 행사 진행

군산대학교 인문도시센터(센터장 국문희와 공종구 교수)에서는 인문주간을 맞이해 군산 시내 전역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3대가 함께 만드는, 생생지락(生至樂) 인문도시 군산 사업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인문학, 미래의 희망을 품다 라는 주제로 인문학은 일부의 편견이나 오해처럼 결코 잉여의 학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중적으로 확산하고 공유하고자 열린다.

22일 개막 공연 행사인 군산시 향토문화유산 제20호, 장금도의 춤 공

연을 시작으로 풍류 피아니스트인 임동철의 명사 특강: 풍류 풀면 다 된다(28일, 군산대학교 황룡문화홀)와 소설가 은희경의 명사 특강: 문학이 주는 것들(10월 27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 및 동아시아 신화학의 석학인 이화여대 정재서 교수의 ‘인문공감 콘서트: 산해경·동아시아 상상력의 원천’(11월 1일, 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 등이 펼쳐진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산대학교 인문도시센터로 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2016 **반딧불** 무주 농·특산물대축제

해발 400~800m 연평균 11.3°C  
안전한 먹거리! 반딧불이가 배달합니다!

제2회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대축제

기간 2016. 11. 04. (금) ~ 06. (일) 3일간  
장소 무주군 예체문화관 일원

주최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대축제 추진위원회 Tel: 063)320-2841~2